

# 광양시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꼭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 문화복지카드·240만원 주거비·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경제적·제도적 각종 지원사업에 무료 강좌 '드림클래스'도

광양시가 각종 청년지원 정책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역 내 18세부터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인 '청년 감동 날개'를 운영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대여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사진 접수 후 신분증, 보증금 등을 지참해 광양청년꿈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여 물품은 ▲남성은 재킷·바지·셔츠·벨트·넥타이 ▲여성은 재킷·치마·바지·블라우스 등이며 치수별로 다양하게 구비되었다. 지난 1개월간 20여명의 청년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을 정도로 호응도 높았다.

또 지역 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가진 청년 또는 전문가와 화과 운영자가 돼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드림 클래스' 사업을 신설했다. 지난달 공예, 예술, 교육 등 14개 분야 전문가를 모집했고, 3-5월 관내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도전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청년꿈터에서 취업 의지는 있

나,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3단계(도전-기초-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있으며, 2022년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1996-2005년생)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집인원은 53명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광양시가 각종 청년지원 정책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광양시 청년꿈터 전경.

주택 청년이다.

'도심 빈집포 활용 청년사업 지원사업'은 창업 의지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선발된 5명에게 인테리어비,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 혹은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거주예정자는 최종 청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유흥업종, 사행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과 복지시설 등의 공익사업을 제외한 6차 산업,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창업 등 전 분야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에 참고해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에서도 우수한 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으로 광양시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전세할 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입은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최대 300만원, 전세는 대출금 6600만원 이내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10만원을 3개월간 매칭 적립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이며, 2024년 대상지는 4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박정규 광양시 청년정책팀장은 "광양시는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청년이 직접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 많은 청년이 지원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AI-사물인터넷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한다

### 손목활동량계·혈압계 등 제공

### 6개월간 진행... 신규 참여자 모집

곡성군이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건강관리 행태 개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기종과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에게는 건강행태별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손목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 '오늘 건강'을 통해 '매일 걷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미션을 부여한다.

참여자는 6개월 동안 '건강 미션'을 수행하고,



곡성군 어르신들이 혈압 체크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미션 달성자에게는 곡성심정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AI-IoT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시티' 국토부 공모 선정

### 국비 20억원 확보

고흥군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 복합시티 공모사업에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시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복합시티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스마트 기술 접목 등을 통해 도로변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 문화, 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사업이다.

군은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휴게소, 주차장, 수주차중전소, 전기차중전소, 특산물판매

장,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유자 축제장, 유자 공원, 탐방로,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하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

이 사업은 순천국도사무소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시티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고흥을 찾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순천시 별량면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우수상

순천시 별량면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는 문화유산, 관광시설, 복지, 생활환경 등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전남도 내 29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별로 1개 우수 읍면동을 추천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순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 주관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47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덕연동(최우수상), 2020년 서면(우수상), 2022년 해룡면(우수상)에 이어 2023년 별량면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순천시의 대표로 선정된 별량면은 적극행

정을 통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루어진 각종 지역축제 ▲따뜻한 이웃나눔 봉사활동 등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별량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만든 허수아비 500여 점을 전시한 '논아트&허수아비 체험행사'가 주민 화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 활동의 모범 사례로 호응을 받았다.

이태문 별량면장은 "면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현장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싹쓸이 하는 별량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꽃길 걸으며 봄 속으로... 30일 보성벚꽃축제

### 부스 실명제로 바가지 요금 근절

보성군이 오는 30일 군립백민미술관 일원에서 제11회 보성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보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문덕면 죽산1리에서 죽산3리 대원사까지 5.5km 구간 왕벚나무 터널을 따라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왕벚꽃 터널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차량을 통제한다. 벚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까지 도보로는 25분, 버스로는 3분이 소요된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왕벚나무 터널 입구부터 중간지점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은 만수위 주안호 경관과 벚꽃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산책코스, 구간마다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했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향토음식점과 특산물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행사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부스 실명제를 도입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교육발전기금

### 16년만에 300억원 달성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가 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모금 중인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모금 시작 3년 만인 2011년 12월 1단계 목표액인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17년 6월 2단계 목표액인 200억원을 조성했다. 올해 3월에는 3단계 목표액인 300억 원을 달성해 설립 당시 2억 원으로 시작한 것과 비교해 150배의 규모로 성장했다.

고흥군은 군민, 향우, 군정,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등 725명의 정기회원과 수시 기탁자들의 후원금뿐만 아니라 군비 출연금, 이자 수입 운용 등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광양시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67개 사업 선정

### 10억 이상 사업·1억 이상 용역

### 투명성·책임성 높여 신뢰도 향상

광양시가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정책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 67개를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실명으로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개된 후 계속 추진 중인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등 36개 사업과 202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31건을 공개 대상 사업으로 의결했다.

시는 사업 목록과 사업 내역을 광양시청 누리집(열린혁신 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류현철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완료까지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 국동항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여수시가 국동항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안전점검은 봄철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 관리하고 예방·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 여수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수협중앙회 여수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 6곳이 함께했다.

대상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관내 연근해 어선 20

여척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의 긴급구난·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의 비치수량 및 상태 확인 등이 진행됐다. 정덕영 여수시 수산경영과장은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상파악과 안전장비 점검 등에 철저히 기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